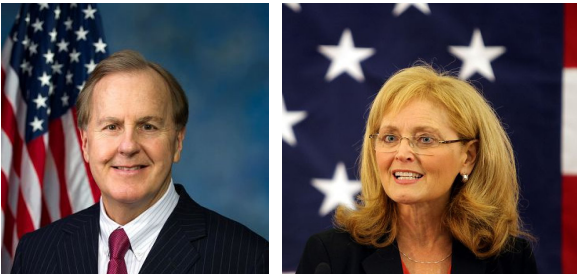


미국 정치인들,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 지지



위사진: 미 의회의원 대나 로라바커
아래 왼쪽사진: 미 의회의원 로버트 피텐저
아래 오른쪽 사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이자 전 위원장인 카트리나 란토스스웨트박사

[밍후이왕] 최근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대규모 장쩌민 고소를 지지했다. 그들은 박해 원흉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장쩌민을 고발한 파룬궁수련

생에게 소란을 피우고 체포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미 의회의원 대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는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장기 매매에 참여해 파룬궁수련생을 살해한 정부와 개인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약 20 만 파룬궁수련생이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을 파룬궁 박해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미 의회의원 로버트 피텐저 의원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 개인이 표현의 권리와 신앙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설 것이고 나아가 문화적 신념과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부 중국 파룬궁수련생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하여 공산당 장쩌민 집단에 의해 교란, 체포, 납치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장쩌민 집단은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 카트리나 란토스스웨트(Katriona Lantos Swett) 박사는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교란하고 수감한 행위는 불법이고 이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감된 파룬궁수련생을 ‘툼 란토스 인권위원회’와 국제사면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자유수호계획’의 ‘입양’ 명단에 포함시켜 구조하기를 희망했다.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장쩌민 고소 대 열풍과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보복과 억압을 당하는 것에 대해 란토스 의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이 당한 박해는 가장 심각합니다. 파룬궁 단체가 짓밟힌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류 가치와 자유입니다.” 그는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법률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항상 짓밟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밍후이 통계: 9 월에 1313 명이 납치되다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2015 년 9 월 1 일 부터 30 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납치, 소란 받은 파룬궁수련생이 1908 명이다. 그 중 1313 명이 납치됐고(장쩌민 고소 때문에 503 명이 납치됐음) 595 명이 소란 받았으며(장쩌민 고소 때문에 427 명이 소란 받았음) 60 명이 불법적으로 판결 받았고, 146 명이 세뇌반에 보내져 박해 받았다. 박해 받은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걸출한 인사이다.

61 세인 광둥(广东)기업가 장스전(张仕珍)은 집에서 지역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성립한 불법적인 조직)과 공안에 의해 납치됐다. 박해 전 그의 재산은 천만 위안을 초과했다. 장스전은

‘진선인(真善忍)’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몇 년 이래 반복적으로 박해 받았다. 이번에 납치되기 전 그는 법률문건을 보내 박해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텐진시 기술인재 리원(李文)은 48 세이며 청화대학 91 기 졸업생이고, 두 학사학위를 받았다. 졸업할 때 기계계 1 등 성적으로 집적 박사공부 하는 대우를 받았다. 리원이 텐진 보커창(玻璃厂)에서 일할 때 국가 전자공업부의 장려와 국가 95 계획 공략상을 포함한 여러 개 발명특허와 공략상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리원에게 불법적인 체포령이 내려졌다. ◇



40 여 년 전, 귀에 들어간 벼알이 저절로 나오다



[밍후이왕] 내 형부는 충칭(重慶) 시 위베이(渝北)구 한 읍의 주민인데 올해 82 세다.

1971 년 탈국할 때 벼알 하나가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의사도 꺼낼 방법이 없었다. 여러 번 병원에 가 봤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 시간이 오래되자 습관이 됐고 다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지금 나이가 들고 한가롭게 되자 또 그 벼알이 귀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아플 뿐만 아니라 청력에도 영향을 끼쳤고 귓가에서 온종일 웅웅 소리가 들렸다.

2014 년 3 월, 그는 또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여전히 그 벼알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는 수술해야만 꺼낼 수 있다고 했다. 형부는 “80 이 다 됐는데 무슨 수술을 해요? 됐어요!”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열흘도 넘지 않은 어느 이른 아침, 부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

았는데 형부는 귀가 간지러워 손으로 한번 쳤더니 그 벼알이 나와서 떨어졌다!

형 부는 즉시 옆에 누워있는 언니를 깨우고 “여보 빨리 봐! 귀 안의 벼알이 나왔어!”라고 했다. 언니는 믿지 않았고 “잠꼬대하는 거죠? 40 년 넘게 들어갔고 의사들도 꺼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유 없이 저절로 나오겠어요?”라고 하자 형부는 벼알을 언니에게 보여줬다. 언니는 “이상하네! 진짜네!”라고 했다. 벼알은 까맣게 변해버렸고 속에 있는 쌀알은 이미 누렇게 됐다.

형 부는 “이것은 파룬따파가 꺼내준 거야!”라고 했다. “처제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늘 묵념하면 대법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요 며칠 알려준 대로 했지,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 40 여 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의사도 방법이 없었는데 ‘따파하오(大法好)’를 읽었더니 벼알이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왔어.

이 파룬궁은 정말로 보통이 아니야. 파룬따파에 감사해야겠어! 리홍쯔 사부님께 감사드려야겠어! 만약 이후로 누가 파룬궁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난 가만 있지 않고 그들에게 말해줘야겠어” 라고 했다.

형부는 언니와 자녀들에게도 “당신과 너희도 매일 ‘파룬따파하오를 읽어라, 진짜 좋다!’라고 했다.

지 금 그의 청력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다시는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일 전에 형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고 매년 대법 달력과 선원 CD를 혼자서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 친구들에게도 보여줬다. 대법제자가 배포한 진상자료도 그는 매우 기분 좋게 받아들였으며 혼자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그가 대법을 선하게 대하고 ‘파룬따파하오’를 읽어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닌가! ◇

지린성 투먼(圖們)시 최명숙이 고속철을 타려다 납치당하다

최명숙은 파룬궁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3 년 노동교양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춘 여자감옥에서 또 4 년 동안 참혹한 고문 박해를 받았었다. 감옥에서 받은 박해를 그는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처음에는 아침 7 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한자세로 서있게 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함) 몇 칠이 지나자 발이 부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신체는 너무나 허약해져 머리가 저절로 빠졌으며 허약한 몸매다 또 밤 10 시 전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고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신체에 고통을 주는 동시에 정신적인 박해는 더욱 잔인했는데 매일 파룬궁을 모독하는 거짓말을 억지로 듣게 했다.

박해에 항의해 나는 또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그 때로부터 그들은 나를 병원에 가두어 놓고 4사람씩 한 조가 되어 밤낮으로 감시했다. 매일 3 차례 음식물을 주입했는데 어떤 때에는 소금 혹은 짠 오리 알을 넣은 물을 마

이라고 강박했다. 음식물을 주입할 때면 고의로 파이프를 위에 넣지 않고 폐에 밀어 넣어 숨을 쉴 수 없게 해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코에서는 늘 피가 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을 못하게 하고는 매일 욕먹고, 모욕을 당했으며 머리를 맞았다.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몇 달 후 경찰이 나를 달아매 놓았는데 즉 나의 두 손과 두 다리를 묶은 후 침대 난간에 달아매 허공에 드리우게 했다. 이런 고문을 몇 시간 받았다.

후에는 사인(死人)침대에 손과 발을 힘껏 당겨 침대 4 각에 매놓고는 침대에서 먹고, 배설하게 했으며 이도 닦지 못하게 했다. 이런 고문을 연속 4 일 동안 당한 때가 있었다. 이런 고문박해는 사람의 극한을 초월해 고통이 극에 달했다. 나는 너무나 참기 어려워 연공 하지 않겠다는 가짜 보증서를 썼다. 이런 정신상의 고통은 육체상의 고통보다 더욱 큰데 정신과 신체적으로 당한 박해 정

도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2009 년에야 감옥에서 돌아왔다.”

최명숙은 감옥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3 차례 납치됐다.

최명숙은 박해에 참여한 모든 경찰들이 잘 생각해보기를 진심으로 희망했다. 62 살인 한 여인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이유로 이렇듯 참혹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는 천리가 용허 하지 않는 것이다. 선악에 보응이 있음은 천리이다.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더는 나쁜 일에 동조하지 말라. 현재 파룬궁을 박해한 고위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 되고,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조까지 일어나 많은 피해자들이 분분히 최고법원에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되므로 빨리 생명의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